군종주보

2019년 3월 3일(제918호) 연중 제8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내 눈에 있는 들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내 단점보다 남의 단점이 눈에 더 잘 띄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하면 기분이 안 상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내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까?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될까?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들보로 인해 자신의 눈이 멀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눈은 있으나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눈먼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눈먼 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을 망쳐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 눈은 밖을 향해 있습니다. 눈을 뜨면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군인들도 보이고 하는데, 정작 그것들을 보는 '나'를 보지는 못하지요. 물론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로 비치는 내 모습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지요. 곧, '속'을 볼 수 있는 거울, '안'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거울을 지닌 사람만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뜨기보다 감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제 안으로 돌림으로써,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짐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는데 신경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안원철(펠릭스) 신부
비룡(25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27,4-7
화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 서	1코린 15,54-5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복 음	루카 6,39-45
영 성 체 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서석봉 안드레아

성인명: 서석봉 안드레아 (徐碩奉 Andrew)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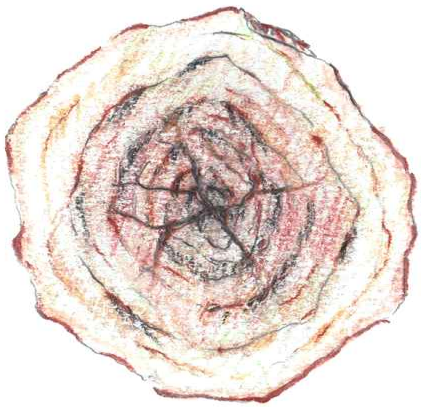
서석봉(徐碩奉) 안드레아(Andreas)는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구성열 바르바라의 남편이며, 1815년 대구에서 옥사로 순교한 최봉한 프란치스코의 장인이다. 뒷날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손골(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박씨(朴氏)의 외조부'라고 전해져 왔다. 서 안드레아가 어디에서 태어나 언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과부였던 구 바르바라와 혼인한 서 안드레아는 사위인 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교우들이 모여 사는 경상도 청송의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으로 이주하여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15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경주 진영에서는 서 안드레아에게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경주 관장은 그를 아내와 사위 등과 함께 대구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대구에서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았지만, 이를 백절불굴의 항구심으로 참아 내면서 신앙을 고수하였다.

서 안드레아는 동료들과 함께 1815년 11월 18일(음력 10월 18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벌로 인해 쇠약해진 탓에 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에 순교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1816년 음력 10월 21일 이전이었다. 당시 대구 감사가 서석봉 안드레아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석봉과 구성열 부부는 함께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뉘우칠 줄을 모른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나이테를 보며

주름이 가고,
틈이 생기고
그렇게
오래되어가는 것이
싫지 않은
나무처럼

우리네 역시
그렇게
멋 내기 좋게
나이 들었으면 합니다.

성화이야기

자비의 성모님

아래 이미지는 <자비의 성모님>이라는 도상의 작품으로, 성모님의 자비로운 망토 아래 보호받고 있는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다. 성직자뿐 아니라 상인과 공인, 평범한 신자가 모두 함께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성모님의 자비와 보호, 사랑 아래 기도를 바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1462년 제작
패널 위 템페라화 / 산세폴크로 시립미술관, 이탈리아

마이클 에이하르트, 1480년경 제작
라임나무에 조각 후 채색
베를린 보데미술관, 독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좀 더 전통적인 도상에 충실한 작품에서는 성모님의 망토가 교회의 지붕 모양처럼 그려져, 교회와 성모님을 동일시하는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 그림에서 성모님은 더욱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을 하고 계신다.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자였던 알도스 헉슬리는 미술사가와 함께 저술한 자신의 책에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이 그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적었고, 이를 기억해낸 영국 장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그림이 있던 곳을 일부러 포격하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8주일: 과꼰단 김영태 신부

◆ 교구장 동정

- 무열대(2작사)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3일(주일)

- 서울군종후원회 사순피정 및 월례미사
  때·곳: 3월 4일(월) 10:00, 압구정동 성당

- ROTC 임관식 참관
  때·곳: 3월 6일(수) 11:00, 육군학생군사학교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